



강진 최제영



곡성 김광휘



광양 김충권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신안 박응식

제20회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성료

전통예술 인재 발굴과 판소리의 명맥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열린 제20회 서편제 보성소리축제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대한민국 판소리의 본고장 보성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서편제 보성소리의 거장 조상현 국장이 명예대회장으로,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현진) 주관으로 열린 이번 축제에는 주무대인 다향체육관, 보성군문화예술회관, 서편제보성소리전수관 등에 많은 인파가 다녀갔다.

축제는 서편제의 비조인 박유전 선생 추모행사와 국민대통합 아리랑 공연 등 전이행사를 시작으로 전년도 대상 수상자, 뉴욕국악협회 공연을 비롯한 올댓코리아 소리길 공연과 평양민속예술단 축하공연,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초청연주 등이 화려하게 펼쳐졌다.

마지막 날에는 각종 경연대회 본선과 난바벌탈 퍼포먼스 공연 역대 대상 수상자 초청 공연,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중요무형문화제와 명창부 수상자 등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KBS 특집 축하공연이 열렸

전통예술 인재 발굴과 판소리 계승·발전

영예의 명창부 대통령상에 '박정희' 선정



제20회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영예의 명창부 대통령상에 '박정희' 선정... 제의 장이 됐다. 특히, 축제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전국판소리·고수 경연대회에는 판소리의 본고장답게 전국 각지에서 실력 있는 소리꾼들 258명이 참여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전국판소리 경연대회 최고의 대상인 대통령상에는 박정희(39세,

여)씨가 선정되어 트로피와 시상금 2천만원을 수상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주어지는 고수 경연대회 명고부 대상에는 원대근(36세, 남)씨가 시상금 5백만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상현 명예대회장은 "서편제 보성소리축제는 소리와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신명나는 소리판으로 이러한 전통소리가 맥을 이어 나기도록 후회양성 등 국악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병선 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축제는 올해 20회를 맞아 국악병인의 등용문인 전국판소리·고수 경연대회를 비롯하여 퓨전국악과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정통과 조화로운 젊은 판소리의 감동이 펼쳐졌다"고 말했다.

또한, "인류 구전문화의 결집인 판소리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 소리의 본고장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보성소리의 세계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장성담 하류에 흥·맛·멋이 넘친다

장성군, 황룡강에 강수욕장·생태학습관 등 설치

장성군이 황룡강에 '흥'과 '맛', '멋'이 어우러지는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성담 하류 황룡강(장성읍 용강리·백계리·상오리) 일원이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장성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장성담 하류지역에 국비 28억원 등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는 개발 사업에 나선다.

장성군은 이 사업의 예비계획으로 '흥 일번지' '맛 일번지' '멋 일번지'를 계획했다.

'흥 일번지'는 황룡강에서 강수욕을 즐길 수 있는 강수욕장 수상레저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카누·카약 계류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맛 일번지'는 황룡강의 토종 어종과 희귀 관상어를 전시하고 닥터피시 축육을 즐길 수 있는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을 조성하고, 상가 서비스 교육, 향토음식 레시피 교육 등을 병행하는 것이다. '멋 일번지'의 주요 내용은 열로우시티와 연계한 수변식물을 식재하고 경관프로젝트

사업을 벌이는 것이다. 장성군은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을 통해 '황룡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한 세계적 체류형 복합 휴안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황룡강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황룡강과 장성호의 활성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장성군은 장성의 젖줄인 황룡강을 전국 최고의 명품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황룡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천사업 제안 공모'에서 '황룡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돼 국비 102억5,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프로젝트는 순항하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황룡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장성의 자랑인 황룡강이 명품 생태하천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라면서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을 통해 흥과 맛, 멋이 넘치는 황룡강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장성=반정모 기자

신안군, 'SNS대상'

올해의 블로그대상

신안군은 19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와 해럴드경제가 공동 주최한 '제7회 2017 대한민국 SNS대상'에서 올해의 SNS부문 '올해의 블로그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SNS대상은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부문별로 시상함으로써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부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정된 상으로, 6월~7월 사이 한 달간의 공모를 거쳐 약 100여개의 기업과 기관이 지난 7월부터 열띤 경쟁을 펼쳤다. 심사는 SNS 활용지수를 통한 정량평가 30점, 심사위원 평가 40점, 내부전문가 20점, 사용자평가(정량평가를 통과한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홈페이지 구축 후 사용자 투표) 10점을 종합해 최종 선정하였다.

심들의 고향, 신안은 '소통하며 걷는 신안 여행'이라는 주제를 포커스로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신안군의 소식을 널리 알리고 여행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리고 있다.

신안=박응식 기자

함평군, 전국 호남가 국악경연대회 개최

28일 함평엑스포공원서

함평군은 오는 28일 2017 대한민국 국악대잔이 한창인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제16회 전국 호남가 국악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사)호남가우리소리보존회(이사장 박문식)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국악의 전승보전과 육성, 대중화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판소리를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경연은 명창·일반·신인·고령부로 나뉘어 예선과 본선을 함께 치른다.

경연시간은 명창부 15분, 일반부 12분, 신인부 각 10분씩이다. 대상은 명창부는 국회의장과 100만원을, 일반부는 국회사무총장과 50만원, 신인부와 고령부는 전라남도지사상과 30만원을 각각

수여한다. 참가접수는 27일까지 (사)호남가우리소리보존회(☎ 061-322-9990)로 신청하면 된다.

박문식 이사장은 "함평은 호남가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곳으로 호남의 자긍심인 호남가를 널리 알리고 계승하기 위해 경연대회를 마련했다"며 "보다 많은 분들이 관망해 우리 소리의 우수함을 알 수 있는 기회와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김광훈 기자

고흥군, 해창만 캠핑 페스티벌 성료

가을 여행 주간을 맞아 21일 고흥 해창만 오토캠핑장에서 열린 제3회 고흥 해창만 캠핑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행사는 ▲주행사로 8090 콘서트, ▲주행사로 8090 콘서트, ▲주행사로 8090 콘서트, ▲주행사로 8090 콘서트 등 별자리 관측 체험, 먹거리 장터 등 ▲특별행사로 아바와 함께 우주캠핑으로 진행되었다.

박맨싱어즈 파페라 오픈 공연을 시작으로 진행된 주행사는 이은하, 김기하, 사운드박스, 백영규, 서문탁

이 출연하였으며, 가수들의 열창으로 매 순간 관람객들의 합성을 이끌어 내며 관객과 함께하는 무대를 만들어 나갔다.

특히, 행사 마지막에 진행된 나이트댄스 파티에는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하여 신나는 댄스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행사의 대미를 장식하였다.

이밖에 별자리 관측체험은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으며, 먹거리 장터에는 많은 이들의 방문으

로 발 디딜 틈 없는 북새통을 이루었다.

아빠와 함께 우주캠핑은 글램핑장 숙소가 사전 완판되었으며, 제공된 제철 식재료인 꽃게와 문어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캠핑 요리 시간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방문객의 건전한 시민 의식으로 단 한건의 사건·사고 없이 행사를 마칠 수 있어 감사드린다"며, "제4회 캠핑 페스티벌은 더 알차고 풍성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남도음식문화큰잔치서 영광의 맛 알려

시군대표음식·남도음식경연 최우수상, 남도단품요리 장려상

영광군은 20일부터 22일까지 강진만 생태공원 일원에서 개최된 전남의 대표축제인 '제24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 참가하여 영광의 음식 맛과 멋을 크게 알렸다.

이번 축제에 영광군에서는 굴비의 고장인 만큼 진실음식을 '굴비찜'으로 상달하였고, 특히 영광을 흥선에(해촌식당 대표)씨가 덕자찜, 굴비찜, 덕자조림 등으로 구성된 시군대표음식에서 최우수상, 영광수산물 향연이라는 주제의 요리로 참여한 남도음식경연대회에서도 최우수상, 보리굴비로 만든 남도단품요리

경연대회에서 장려상 수상 등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남도음식 명인관에 최윤자씨의 이기 돌상을 주제로 한 꽃송편, 꽃달떡, 꽃다식 등의 전통음식 작품을 전시하여 관광객의 큰 호평을 받았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하여 육담굴 영광 음식의 맛과 멋을 더욱더 널리 알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넉넉한 남도음식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당신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가족처럼, 친구처럼 오래오래~
우리 결연 언제나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이 있습니다.
쓸때마다 즐거운 우체국 체크카드,
든든하게 힘이되는 우체국보험,
행복한 꿈을 주는 우체국예금까지
이제, 우체국에서 만나세요~

언제나 내곁에 ~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